

2025. 3. 12.(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12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정원도시국 정원도시정책과

정원도시정책과장 박미애 02-2133-2010

정원도시대외협력팀장 이원창 02-2133-2035

공원여가사업과

공원여가사업과장 정명이 02-2133-9356

산림여가운영팀장 임록화 02-2133-9368

조경과

조경과장 유혜미 02-2133-2100

조경기획팀장 차윤정 02-2133-2109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7쪽

서울정원팀장 한봉기 02-2133-2108

서울시, 산림청과 '경제 활성화' · '정원문화 확산' 위해 맞손

- 서울시, 12일(수) 산림청과 업무협약 체결...산림 경제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에 적극 협력
- 국산 임산물 소비 촉진 협력...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장, 가든페스타 등서 홍보·판매 계획
- 서울광장 내 새로운 잔디광장 조성에 국산 목재 이용...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 서울형 정원처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 협력...다양한 사례 연구로 다양성·전문성 높일 계획

서울시와 산림청은 12일(수) 10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산림 경제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산 임산물 소비 촉진 ▲국산 목재 이용 확대 ▲정원처방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먹거리 임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이 국가상표로 출시한 '숲푸드' 등 국산 임산물을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홍보·판매한다.

- 최근 산림청은 식품업계의 ESG 경영과 연계해 농·수산물 대비 인지도가 낮고 주식보다는 기호식품으로 소비 범위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던 임산물을 국가공동상표 ‘숲푸드’로 개발했다. ‘숲푸드’는 표고버섯·산나물·감 등 먹거리 임산물 91종이 등록 대상이며, 2025년 300개 제품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시는 공원 상행위에 대한 규제개혁과 관련해 서울시 주요 공원 내에서 ‘가든페스타’ 행사 시, 청정 임산물인 ‘숲푸드’를 홍보·판매하는 등의 협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 또한 시가 기존 잔디마당을 목재와 잔디를 패턴화해 새로운 잔디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국산 목재(낙엽송)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한다.
 - 목재는 친환경 자재로 시민 선호도가 높지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생산·운송하는 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켰던 게 사실이다.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는 것은 목재 방부·운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 새로운 잔디광장 조성은 오는 4월 말 완료 예정이며, 시는 강도가 높은 낙엽송의 자체 색과 질감이 자연스럽게 잔디와 잘 어우러져 시민들이 자주 찾고 싶은 경관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양 기관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산림치유센터, 서울둘레길 등에서 시행 중인 서울형 정원처방 프로그램을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프로그램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함은 물론 운영자의 자격·배치 등의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서울형 정원처방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 서울형 정원처방 프로그램은 고립·은둔 청년, 어르신, 유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산림·정원에서 스트레스 완화와 우울감 해소를 위해 진행되는 치유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는 소방관 등 직무상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공공안전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도 신규 기획해 진행하고 있다.

□ 협약식에 참석한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본 협약을 통해 국산 임산물 소비와 국산 목재 활용 분야에 대한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며, “정원처방 사업 관련해서도 산림청의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 공유와 제도 마련 등의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후변화의 시대, 청정하고 친환경적인 우리 숲의 자원을 서울 시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다양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산림청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 협약식 사진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이미라 산림청 차장이 3.12.(수)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산림경제 활성화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12.(수)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산림경제 활성화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Q1| ‘숲푸드’ 는 무엇인가요?

- ◆ 국내에서 재배된 청정임산물의 국가공동상표로 산림청이 론칭한 먹거리 임산물의 브랜드이다.
- ◆ 임산물은 농·수산물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주식보다는 기호식품으로 소비되는 등 소비범위 확장에 어려움이 있는데, 최근 식품업계와의 협업으로 소비트렌드를 분석하여 개발하였다.
- ◆ 풍부한 영양소와 약리·기능적 성분을 함유한 건강식품으로 탄소배출이 적고 화학비료나 농약사용이 많지 않아 탄소감축과 토양오염 저감에도 기여도가 높다.
- ◆ 임산물 국가공동상표 숲푸드는 표고버섯·산나물·감 등 먹거리 임산물 91종이 등록 대상이며, 올해 300개 제품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Q2| '숲푸드' 브랜드 운영 목적은 무엇인가요?

- ◆ '임산물'이라는 용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일상에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먹거리 임산물을 '숲푸드'로 브랜드화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브랜드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숲푸드를 적극 소비하고 홍보하는 일은 농산촌의 지역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산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큼니다.

|Q3| 낙엽송 국산목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 낙엽송은 나무의 결이 곱고, 색깔이 다양하며, 재질이 단단한 특성을 갖고 있어 현재 건축자재 등으로 수요가 가장 높은 목재수종 중 하나입니다.
- ◆ 우리나라의 낙엽송은 산림청이 전국 사유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벌채기에 접어든 40년 이상 수령의 낙엽송의 식재면적이 총 28천ha(여의도 면적의 약 97배 크기)이고, 그 재적은 총 3,431천㎥(4톤 트럭 약 858천 대 분량)이라고 합니다.
- ◆ 산림청은 전국 지자체, 목재업계와 협력하여 벌채기에 접어든 전국 사유림 내 낙엽송을 활용하여 건전한 목재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 낙엽송은 고열처리를 통해 수분을 날려 목재의 내구성을 강화시키고 자연스러운 색상과 질감을 돋보이게 해 미적가치를 높이고, 탄화처리를 통해 낙엽송의 방충 및 방부 특성 강화로 한국의 기후조건에 적합한 자재로 생산합니다.

|Q4| 서울형 정원처방사업은 무엇인가요?

- ◆ 우울, 외로움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정원치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산림치유센터, 서울둘레길 등에서 작년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 ◆ 올해는 134개 시설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약 2,400회의 정원처방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 정원처방사업은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회복을 유도하는 자연치유를 목표로 합니다. 정원산책, 맨발 걷기, 숲 요가, 꽃 활용 공예, 피톤치드 복식호흡 등 정원치유에 원예와 산림치유를 결합하여 정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신체·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 프로그램은 유아·어린이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직무상 트라우마를 남기는 환경에 접하기 쉬운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Q5| 정원 처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면 어떠한 변화가 있나요?

- ◆ 2024년 서울형 정원처방사업 시범운영 결과로 볼 때, 정원처방사업 참여자 598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가 96.5%, ‘심신안정에 도움됐다’가 96.7%로 나타나 서울형 정원처방이 시민의 일상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슬기로운재활의학과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받아 서울대치과대학 김현정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정원처방’ 효과 검증 결과, 우울 감이 완화되고 부정정서가 감소했으며 긍정정서는 증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 ◆ 실제로 불암산-관악산 정원처방 전·후 심리적 변화 조사 결과, 우울감은 36% 감소, 외로움은 3% 감소, 긍정점수 28% 상승, 부정점수 1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